

금호타이어 '상표권 싸움' 장기전 예고

박삼구 회장 "상표권료 현행보다 더 받고 5년만 보장"

공동권리 금호석화는 산은에 위임... 시간끌기 관측도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산업은행이 '상표권'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단기간 내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박 회장은 '금호' 상표권에 대해 "합리적 금액이면 5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상표권 공동권리를 소유한 금호석화가 산은에 권리를 사실상 위임한 상태에서 박 회장의 고심도 깊어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금호산업은 지난달 29일 상권례를 갖고 본격적인 상표권 협상에 돌입했지만 박 회장은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더블스타 요구가 과도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삼구 회장 "합리적 금액이면 5년 보장"...협상 장기화 전망=더블스타는 산은과 지난 3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금호 상표권을 5년간 보장하고, 추가로 15년간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용료는 금호타이어가 금호산업에 내는 현행 요율(매출액의 0.2%)보다 높지 않게 보장해 달라고 했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넘어가면 계열사에서 이탈하는 만큼 매출액의 0.2%인 현행 사용료 보다는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모든 계열사들이 사용계약을 매년 갱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5년까지만 상표권을 보장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더블스타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금호 상표권 사용을 중단하는 조항은 금호산업 측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결국 박 회장이 전제로 내세운 '합리적 조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1차 분수령이고 여기에 최대 20년까지 상표권 사용 권리를 산은이 받아낼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 허용은 사실상 금호타이어 인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박 회장이 순순

히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산은이 여러 조건을 내걸면 박 회장 측은 이권지연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매각종결 시한(9월23일)을 넘기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상표권 한 축 금호석화, 산은에 힘 실어...박삼구 회장의 선택 주목=산은은 만기채권을 무기로 박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 채권단은 6월말 만기가 도래하는 1조 3000억원 규모의 금호타이어 채무상환을 더블스타 매각협상이 완료되는 9월말까지 3개월만 연장했다.

금호그룹이 상표권 문제로 계속 어그úz을 놓아 매각이 무산되면 법정관리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으름장을 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은은 상표권 공동권리를 소유한 금호석화와 접촉에 나서며 우회 압박에도 나섰다.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화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2011년 계열분리된 후 금호 브랜드를 독자적으로 이용해왔다. 금호산업이 2013년 상표권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이 진행중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금

호석화도 금호산업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셈이다.

금호석화는 금호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산업은행에 사실상 '백지위임'한 상태다. 현재 수준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석화는 전향적이지만 금호산업이 상표권을 허가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 매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표권 카드로 우선 산은과 대치하고 있지만 박 회장의 속내는 복잡하다. 키를 쥐고 있다지만 주채권은행이고 대주주인 산은과 마냥 척을 지기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가능성에 격양된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산은과 전면전을 벌이긴 힘들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중국계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대한 반감여론을 최대한 활용해 산은의 면을 세워주면서도 자연스럽게 장기전을 끌고 가 매각 무산을 유도하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 "펀드에 투자하세요"

12일까지 미래에셋 전환형 한시 판매...수익 5% 안정 설정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이 지난 2012년 출시 이후 국내 우량 배당주 투자와 다양한 인컴수익추구 전략을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검증받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배당프리미엄 목표전환형펀드 2호"를 오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펀드는 국내 우량 기업의 우선주와 배당주에 투자하며 동시에 콜옵션 매도를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컴수익을 확보하는 전

략의 상품으로, 5월말 모펀드의 5년 수익률은 75.33%로 국내 혼합형 펀드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판매하는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 목표전환형펀드 2호'는 고객의 안정적인 투자성과 관리를 위해 목표수익을 5%로 설정하고, 운용기간 중 목표수익인 5%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채권펀드로 전환하는 전략을 통해 고객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그랑프리' 삼성 세탁기

3종 아시아인간공학회 디자인상



플렉스워시

삼성전자는 자사 인간공학 세탁기 시리즈가 아시아인간공학회(ACED)가 주관한 제1회 '인간공학 디자인상'에서 가전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그랑프리를 받은 삼성 세탁기는 플렉스워시·에드워시·액티브워시 등 3종이다.

플렉스워시는 상부에 소용량 전자동세탁기와 하부에 대용량 드럼세탁기를 결합한 세계 최초의 올인원 세탁기이다.

에드워시는 세탁기 도어에 달린 에드윈 도어로 세탁 도중 언제든지 세탁물을 추가할 수 있는 제품이다.

액티브워시는 상부에 빌트인싱크 탑재로 허리를 굽히지 않고 애벌레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아시아인간공학회는 "삼성 세탁기는 제품 설계과정에서 사용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간공학 연구방법론과 설계 원리를 널리 적용했다"고 평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전력은 지난 2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전-서울대 간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 왼쪽 세 번째부터 차상군 서울대 교수,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제공>

한전 '디지털 KEPCO' 선언

서울대와 빅데이터 기술협약...상업·학술 등 맞춤형 솔루션 제공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력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할 빅데이터와 ICT기반의 'Digital KEPCO'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서울대 차상군 교수를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원장 차상군)과 한국전력은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전력빅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을

통한 전력분야 공공서비스 개발과 전력빅데이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개발, 인재양성 및 공동연구 등의 자문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은 핵심전문가 영입 및 기술협약 체결 등을 통해 'Digital KEPCO' 추진 체계를 완비함과 동시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특이점 시대를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전은 3조 6000억 개에 달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하여 상업·학술·공공 분야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에너지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관리, 전력 거래 등 최종 소비자의 사용가치를 증대하는 모든 전력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은 차상군 교수와 같은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에너지산업 분야의 미래먹거리 창출 및 일자리 확충에 기여하고 글로벌 에너지 벨트를 구현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최고의 글로벌 전력 회사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부, 친중소기업 행보 펴달라"

중기중앙회 여수서 현장간담회...기업인 애로 청취

중소기업인들이 경기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현장 체감경기가 여전히 나쁘다며 새 정부가 친중소기업 행보를 펴 어려움을 덜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중기중앙회장은 3일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이 지역회장단과 함께 여수 오천산업단지에서 있는 (주)국보수산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지역중소기업인 등 25명과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수출액 등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나쁘다고 토로했다.

임선명 중기중앙회 전북지역회장은 "주변의 경제 심리는 다소 회복되는 것 같은데 실제 중소기업의 실적이나 경기 회복세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듯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김갑은 국보수산 대표는 "긴 내수불황을 견뎌내기 어려웠지만 신제품 개발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 내수시장을 탈피해 인도나 일본 등 글로벌시장으로의 진출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불황기의 경영 노하우를 현장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

감도 숨기지 않았다. 김경준 광주전남지역회장은 "새 정부가 중소기업부를 신설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입장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새 정부가 사회적 경제에도 관심이 많은 만큼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중소기업에 정책제안을 공약으로 많이 반영한 것 같다"며 "새 정부의 친중소기업 행보가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아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

로또복권 (제75회)		2등보너스 숫자				
당첨번호						
6	7	11	17	33	44	1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739,839,858		21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38,079,993		68	
3	5개 숫자일치		974,573		2,657	
4	4개 숫자일치		50,000		117,353	
5	3개 숫자일치		5,000		1,788,667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삼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시술 전

시술 후

시술 전

시술 후

대산 종합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짐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심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광주 광역시 북구 증음동 373-14번지 1층 광주역 뒤 증음삼거리 부근

010-8628-0482